

(minor salivary gland) 에서 발생하며, 구개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58.6%이나 전체 원발성 상피성 타액선 종양의 약 3%를 정도 차지하는 드문 종양이다. 보고에 따라서 발달관 암종, 소엽성 암종, 유두상 암종과 육주상암종 등의 이름으로 보고되었으나 이 종양의 조직학적 다양성과 생물학적 성상을 따라 PLGA로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나 PLGA의 세포학적 소견은 매우 드물게 기술되어 있다.

저자들은 33세 여자 환자로 좌측 구개에 종괴가 3개월 전부터 발생하여 세침흡인 세포검사로 진단후 생검으로 확인되어 절제한 PLGA 1예를 경험하여 그 세포학적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세포성분은 중등도로 도말되었고 크고 작은 세포 군집들이나, 각각의 세포로 산재되어 있었다. 세포군에서는 작은 선방을 형성하거나 유두상 배열을 보이며 세포 크기는 일정하나 약간의 다형성을 보였다. 커다란 종괴로 도말된 곳에서는 가는 모세혈관들이 분지되고 약간의 초자양 기질이 보였다. 이런 가지 끝에 비교적 일정한 입방형 상피세포들이 군집으로 매달려 있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입방형의 세포들은 대개 중등도의 연한 호산성 세포질을 가지며 구형이나 난원형의 핵은 얇은 핵막과 섬세한 염색질이 보이고 간혹 핵을 가로 지르는 주름이 관찰되었다. 핵소체는 뚜렷치 않았으나 간혹 작은 핵소체가 관찰되었다. 핵분열이나 괴사성 배경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 후 생검 및 절제된 조직은 구개 점막 직하에 1.5×1×1 cm 크기의 부분적으로 침윤성을 보이는 PLGA로 확진되었다.

11. 방광의 순수 평편 상피세포암종 2예 Pure Squamous Cell Carcinoma of Urinary Bladder - Report of 2 Cases -

강정희, 서강석, 이선경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방광의 편평 상피세포암종은 비교적 드문 종양으로 전 방광암종의 약 1.5% 내지 6.5%를 차지하고, 이들의 대부분은 이행 상피세포암종 또는 선암종에 동반되기 때문에 순수한 평편 상피세포암종은 대단히 드물다. 이런 순수 편평 상피세포암종의 진단은 재구축학적 관찰을 하여야만 비로서 확진할 수 있으며 보통 외과병리학적, 또는 세포학적 방법들로는 확진하기가 어렵다.

연자들은 뇨세포 검사상 편평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되었고, 방광의 재구축학적 검사로 확진된 순수 평편 상피세포암종 2예를 경험하였기에 문헌 고찰과 더불어 보고하는 바이다.

중례 1은 55세 남자로서 1개월간의 혈뇨, 빈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뇨세포 검사상 편평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 받았다. 방광경 검사상 우측 요관 입구에서 용종상 종괴가 관찰되어 환자는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진단 당시 stage T3b, N1, Mo 였다.

중례 2는 73세 남자로서 5개월간의 혈뇨와 배뇨곤란으로 내원하여 뇨세포 검사상 편평 상피세포암종으로 진단받았으며, 방광경 검사상 유두상 종괴가 우측 요관 입구 주변에서 관찰되어 근치적 방광 절제술을 시행받았다. 진단 당시 stage T3a, N1, Mo 이었다.

2 예의 노세포 검사 표본은 생식기관이나 호흡기관 등에서 생기는 편평 상피세포암종과 매우 유사한 세포학적 소견을 보였다. 혈성 및 괴사성의 도말 배경에 종양세포들이 단독으로 흩어져 있거나, 몇 개씩 뭉쳐져 있었고 풍부한 각질화로 인하여 핵이 없는 영상(ghost) 세포들도 관찰되었다. 개개의 종양세포들은 오렌지색 또는 황색의 풍부한 세포질을 가지면서 각질화와 초자질화한 고리(kerathohyaline ring)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종양세포의 핵은 불규칙하면서 농축되고 진하게 염색되었다.

12. 간의 전이성 유암종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Rectal Carcinoid Tumor Metastasized to Liver

박찬필, 박찬금, 이중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위 장관에 발생하는 유암종은 대개 그 크기가 작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대개 무증상이다. 악성의 근거는 원격전이와 근육층의 침범 및 림프절 전이에 의한 것이다. 반면 간에 전이된 유암종은 뚜렷한 종괴를 형성하여 촉진 가능할 수 있다.

저자들은 우상복부 동통과 함께 촉진되는 간 비대가 있는 환자에서 간에 다발성의 종괴 세침흡인 결과 유암종으로 진단된 1 예를 경험하였다. 초음파 소견상 간에 미만성으로 다발성 종괴가 관찰되었고, 이 중 제일 큰 것은 9 cm 이었고 중심부에 낭성 변화를 동반하고 있었다.

세침 흡인 도말상 상당히 많은 수의 작고 둥근 세포가 도말되었으며, 세포들은 다형성이 없이 균일한 양상이었으며, 핵은 둥글거나 난원형이었고, 비교적 섬세하고 균일하게 퍼진 염색질을 보였고, 세포질은 거의 없었다. 세포들은 개개의 세포나 성근 집단을 형성하였고 간혹 합포체(syncytium)를 형성하였다. 기관 모양의 양상은 세포 도말에서는 뚜렷하지 않았다. 세포 군집에서는 전형적인 꽃줄(festoon) 양상을 보이는 유암종의 소견을 나타내었다. 환자는 그 후 대장 조영술 상 직장에서 1×1.5 cm의 점막하 종괴가 관찰되었으며 생검상 유암종으로 확진되었다.

13. 췌장의 악성 소도세포종 1 예의 세침흡인생검 소견 Cytologic Findings of Malignant Islet Cell Tumor of the Pancreas

김의정, 최윤정, 김규래*, 정우희, 이광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및 차병원 해부병리과*

40 세된 여자환자가 이틀간의 상부위장관 출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과거력 및 가족력 상 특이소견은 없으며, 오심, 토혈, 혈변, 어지러움을 호소하였으나 내분비 이상의 증상은 없었다. 이학적 소견상 만성 병색을 보이고 결막은 창백하였으며 혈압은 80/60 mmHg로 매우 낮았다. 임상 병리학적 검사상 백혈구는 15,300/mm³, 혈색소는 9.1 mg/dl, 혈침치는 30% 였고, 공복시 혈당은